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사고 성향,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건희¹, 황은희^{2*}

¹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²원광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Kon-Hee Kim¹, Eun-Hee Hwang^{2*}

¹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²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사고 성향,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인과관계 연구이다. 대상자는 2개 지역 2개 간호학과 재학생 314명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간호학과 지원동기, 학과만족도, 개인 성격, 대인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셀프리더십, 비판적사고 성향, 학과만족도, 개인 성격이었으며, 셀프리더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비판적사고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341) were sampled randomly from nursing departments in two citie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May 11 to June 5, 2015. The participa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assessing the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 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s,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varied by application motivation, satisfaction with one's major, personality trait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leadership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predicting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llowed b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atisfaction with one's major and personality traits. Therefore,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eed to devise an appropriate program to improve self-leadership and critical thinking,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career-related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Ego-resilience, Self leadership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Hwang(Wonkwang Univ.)

Tel: +82-63-850-6071 email: ehh@wku.ac.kr

Received October 26, 2015

Revised (1st November 20, 2015, 2nd December 15, 2015, 3rd January 4, 2016)

Accepted February 4, 2016

Published February 29,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찾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며, 성숙한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닦아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대학시절은 그 동안의 어느 시절보다도 진로 결정의 중요한 시기로, 진로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결정하고 자아실현을 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1-2].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흥미와 적성보다는 학업성과 가족의 영향을 받아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로결정 과정이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3].

반면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 대학 진학과 동시에 진로가 이미 결정되고 취업이 수월하여 자신의 전공에 대한 탐색과 평가가 부족하다. 실제로 간호학과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로 취업에 용이한 것이 49.2%로 가장 많았고, 적성에 맞음이 17.1%, 경제적 안정성이 11.1%로 나타나[4]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간호학과 학생이 졸업 후 병원에 취업했을 때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이직으로 이어지게 되어,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이 33.6%로 간호사 평균 이직률 16.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결과를 야기한다[5].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간호인력 부족이라는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간호학과 학생의 진로에 대한 탐색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에서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확신성으로, 진로를 탐색하려는 의도와 높은 상관성이 있고, 올바른 진로를 결정한 후 그것을 잘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인이다[6-8]. 선행연구 고찰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진로동기 등의 진로 관련 변인과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어[1,9], 간호학과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탐색, 평가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직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10], 간호대학생이 전공에 적응하고 졸업 후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뜻하는 자아탄력성은 진로준비 행동을 돕는 심리적 요인이며 진로준비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12]. 비판적 사고는 사실 혹은 증거에 기초한 판단을 하는 사고로 간호 실무에서 전문적 책임과 질적인 간호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간호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13]. 현재까지 비판적 사고의 개념은 주로 교육성과나 임상수행 능력, 간호전문직관과 같은 결과적 측면과 관련지어 연구되고 있다[14-15]. 그러나 비판적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고, 유사한 개념인 문제해결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는 연구 결과[1]를 통해 진로 결정과 비판적 사고와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과정이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과업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일상생활에서 하고자 하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내재적 탐구 과정이다[16]. 본인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은 대학생 시기의 필수 요소이며, 진로동기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17-18]. 따라서, 전공과 임상 환경에의 유연한 반응 성향인 높은 자아탄력성과 문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비판적 사고, 스스로 효율적인 방안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셀프리더십은 결국 진로에 대한 확신과 자심감을 의미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호학과 신설 및 입학 정원 증가에 따른 졸업생의 취업 문제는 타 학과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간호학과도 더 이상 예외일 수 없다.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역시 간호학과 학생의 진로에 대한 탐색과 지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간호학과 인증평가 기준에 맞춘 성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현재 간호학과는 진로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간호학과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연구 역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등 일부 변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을 뿐 많지 않다. 더욱이 자아탄력성이나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등은 개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할 수 있는 변인으로써의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고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파악을

통해 간호학과 학생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1.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인과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두개 지역 소재 종합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임의 표출하였다. 표본수 산출을 위해 G*Power 3.1.9.2로 상관분석을 위해 효과크기 0.10, 유의수준 .05, 검정력 0.95, 예측변인 15개로 산출한 결과 292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330명을 표본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책임자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IRB 승인(WKIRB-201504-SB-012)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5년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동의서를 통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 응답시간은 15분 가량 소요되었으며, 배부된 330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6부를 제외한 314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19]이 개발하고 Yoo와 Shim[20]이 번안한 14문항 4점 척도의 도구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5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7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1$ 이었다.

2.3.2 비판적 사고 성향

비판적 사고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Kwon 등[21]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적통합 6문항, 창의성 4문항, 도전성 6문항, 개방성 3문항, 신중성 4문항, 객관성 4문항, 진실추구 3문항, 탐구성 5문항의 5점 척도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이었다.

2.3.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Houghton과 Neck[22]이 개발한 도구를 Shin, Kim과 Han[23]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5점 척도의 3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은 자기목표설정, 자기 보상, 자기 관찰, 자기단서, 자기 처벌, 자연적 보상, 성공적인 수행 상상하기, 자기 대화, 신념과 가정 분석 등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73\sim.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 이었다.

2.3.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etz, Klein과 Taylor[24]가 개발한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cale-Short Form을 Lee[25]가 번안한 5점 척도의 2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과 관련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 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 특성 및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 LSD post-hoc test로 분석하였다.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10.2%, 여자가 89.8%였고, 1-4학년이 각각 약 25%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학업 성적은 평점 3.0~3.9가 51.9%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로 '적성과 흥미'가 50.3%로 가장 많았으며 '타인의 권유'가 23.6%, '취업을 고려'가 12.7%의 순이었다. 졸업 후 첫 희망진로는 84.4%가 의료기관으로 답하였고, 학과만족도에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62.4%로 가장 많았다. 외향적 성격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0%, 내향적 성격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9.0%였으며, 대인관계는 62.7%가 '좋다'고 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14)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32	10.2
	Female	282	89.8
School year	1st	77	24.5
	2nd	78	24.8
	3rd	82	26.1
	4th	77	24.5
Grade point average	≥4.0	40	12.7
	3.0~3.9	163	51.9
	2.0~2.9	29	9.2
	Unknown	82	26.1
Application motivation	Aptitude	158	50.3
	Recommendation of others	74	23.6
	Employment guarantee	40	12.7
	High school record	22	7.0
	Nurse's professionalism	20	6.4
Plans for after graduation	Hospital	265	84.4
	Civil servant	37	11.8
	Graduate school	5	1.6
	School nurse	7	2.2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	Good	196	62.4
	Moderate	105	33.4
	Bad	13	4.1
Personality traits	Introvert	154	49.0
	Extrovert	160	51.0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97	62.7
	Moderate	111	35.4
	Bad	6	1.9

3.2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Level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 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N=314)

Factors	Min	Max	Mean	SD
Ego-resilience	1.64	4.00	2.82	0.38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2.43	4.57	3.34	0.35
Self leadership	2.54	4.69	3.51	0.4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2.24	4.64	3.47	0.43

자아탄력성은 4점 만점 중 평균 2.82±0.38점이었고, 비판적 사고 성향은 5점 만점 중 평균 3.34±0.35점,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 중 평균 3.51±0.41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 중 평균 3.47±0.43점으로 나타났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비판적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자아탄력성은 성별, 간호학과 지원동기, 학과만족도, 성격 유형, 대인관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t=4.067, p<.001$), 지원동기가 흥미와 적성인 경우($F=3.839, p=.005$), 학과에 만족하는 경우($F=4.878, p=.008$), 외향적 성격인 경우($t=-5.204, p<.001$),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F=18.177, p<.001$)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성별, 학과만족도, 성격 유형, 대인관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t=4.669, p<.001$), 학과에 만족하는 경우($F=6.685, p=.001$), 외향적 성격인 경우($t=-2.379, p=.018$),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F=10.580, p<.001$) 비판적 사고 성향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Table 3. Factors related to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 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N=314)

Factors	Ego-resilience			CTD			Self Leadership			CDMSE		
	M±SD	t / F	P LSD	M±SD	t / F	P LSD	M±SD	t / F	P LSD	M±SD	t / F	P LSD
Gender												
Male	3.07±0.39	4.067	<.001	3.66±0.42	4.669	<.001	3.61±0.44	1.505	.133	3.56±0.40	1.141	.255
Female	2.79±0.37			3.30±0.32			3.50±0.40			3.46±0.44		
School year												
1st ^a	2.81±0.37	0.252	.860	3.35±0.34	1.414	.239	3.49±0.40	0.494	.687	3.50±0.39	0.397	.755
2nd ^b	2.81±0.37			3.38±0.39			3.48±0.43			3.49±0.49		
3rd ^c	2.85±0.39			3.27±0.30			3.51±0.40			3.43±0.42		
4th ^d	2.80±0.41			3.34±0.38			3.55±0.41			3.43±0.44		
Grade point average												
≥4.0 ^a	2.76±0.37	0.888	.447	3.35±0.32	1.465	.224	3.62±0.37	3.130	.026 a>c	3.47±0.44	1.291	.277
3.0~3.9 ^b	2.80±0.38			3.34±0.34			3.51±0.42			3.48±0.46		
2.0~2.9 ^c	2.89±0.40			3.21±0.43			3.32±0.38			3.33±0.40		
Unknown ^d	2.84±0.39			3.37±0.35			3.50±0.40			3.50±0.38		
Application motivation												
Aptitude ^a	2.90±0.37	3.839	.005 a>c	3.38±0.39	1.651	.161	3.55±0.43	1.886	.113	3.53±0.45	2.832	.025 a>b,c e>b
Recommendation of others ^b	2.76±0.38			3.28±0.29			0.49±0.39			3.37±0.37		
Employment guarantee ^c	2.71±0.43			3.27±0.33			3.36±0.33			3.37±0.34		
High school record ^d	2.70±0.31			3.31±0.28			3.54±0.39			3.43±0.42		
Nurse's professionalism ^e	2.75±0.33			3.35±0.33			3.54±0.39			3.59±0.57		
Plans for after graduation												
Hospital	2.82±0.38	0.746	.525	3.33±0.35	0.807	.491	3.51±0.39	0.704	.550	3.47±0.44	0.622	.601
Civil servant	2.80±0.42			3.33±0.36			3.52±0.49			3.53±0.40		
Graduate school	3.00±0.44			3.55±0.60			3.54±0.37			3.46±0.36		
School nurse	2.67±0.39			3.24±0.25			3.29±0.41			3.30±0.36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												
Good ^a	2.87±0.38	4.878	.008 a>b	3.39±0.34	6.685	.001 a>b	3.58±0.41	9.410	<.001 a>b	3.58±0.42	20.374	<.001 a>b,c
Moderate ^b	2.74±0.36			3.24±0.35			3.38±0.37			3.31±0.38		
Bad ^c	2.67±0.49			3.25±0.31			3.39±0.38			3.12±0.40		
Personality traits												
Introvert	2.71±0.38	-5.204	<.001	3.29±0.36	-2.379	.018	3.48±0.41	-1.375	.170	3.38±0.43	-3.602	<.001
Extrovert	2.92±0.36			3.38±0.33			3.54±0.40			3.56±0.42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a	2.89±0.36	18.177	<.001 a>b,c a,b>c	3.40±0.34	10.580	<.001 a>b	3.56±0.41	4.191	.016 a>b	3.55±0.41	10.969	<.001 a>b
Moderate ^b	2.72±0.37			3.22±0.34			3.44±0.39			3.34±0.44		
Bad ^c	2.15±0.33			3.19±0.18			3.27±0.41			3.18±0.40		

CT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셀프리더십은 학과 성적, 학과만족도, 대인관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평점 4.0이상인 경우(F=3.130, p=.026), 학과에 만족하는 경우(F=9.410, p<.001),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F=4.191, p=.016) 셀프리더십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지원동기, 학과만족도, 성격유형, 대인관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흥미과 적성 그리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한 경우(F=2.832, p=.025), 학과에 만족하는 경우(F=20.374, p<.001), 외향적 성격인 경우(t=-3.602, p<.001),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F=10.969, p<.00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3.4 자아탄력성, 비판적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 상관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아탄력성(r=0.353, p<.001)과 비판적 사고 성향(r=0.519, p<.001), 셀프리더십(r=0.522,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탄력성은 비판적 사고 성향(r=0.451, p<.001), 셀프리더십(r=0.377,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비판적 사고 성향은 셀프리더십(r=0.559,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 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N=314)

Variables	CTD	Self Leadership	CDMSE
	r (p)		
Ego-resilience	.451 (<.001)	.377 (<.001)	.353 (<.001)
CTD		.559 (<.001)	.519 (<.001)
Self leadership			.522 (<.001)

CT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5 자아탄력성, 비판적사고 성향,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차이를 보였던 간호학과 지원동기, 학과만족도, 성격유형, 대인관계, 리더로서의 경험을 더미변수처리한 다음,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변수와 함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N=314)

	β	t	p
(Constant)		5.393	<.001
Self Leadership	0.304	5.636	<.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294	5.456	<.001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1 (0=Good, 1=Moderate)	-0.163	-3.544	<.001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2 (0=Good, 2=Bad)	-0.145	-3.224	.001
Personality trait (0=Introvert, 1=Extrovert)	0.115	2.555	.011
Adjusted R ² =.393			
F=41.477 p<.001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VIF값이 1.076~1.690으로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회귀분석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변수는 셀프리더십($\beta=0.304, p<.001$), 비판적 사고 성향($\beta=0.294, p<.001$), 학과만족도(보통; $\beta=-0.163, p<.001$, 불만족; $\beta=-0.145, p=.001$), 외향적 성격유형($\beta=0.115, p=.011$)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이 가장 높은 영향 요인이었다.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41.477,

$p<.001$ 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²가 .393로서 이들 변수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39.3%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의 평점은 4점 만점 중 2.82점이었는데, 이는 임상실습을 수행한 간호대학생의 2.80점[26]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타 전공 학생들의 경우 5점 만점 중 3.42점, 4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74점[27]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간호학과 학생은 보통 이상의 자아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은 5점 만점 중 3.34점이었는데, 이는 도구는 다르지만 임상실습을 수행한 3, 4학년 간호학생의 3.37점[15]과 비슷한 수준이며, 무용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8] 결과 6점 만점 중 3.59~3.82점(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99~3.18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간호학과 교육과정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데, 간호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충분한 실무 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는데[29] 두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 중 평점 3.51점이었는데, 이는 일반 대학생의 3.53점[1], 도구는 다르지만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0]의 3.64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 중 평점 3.47점으로, 간호대학생의 3.42점[9], 일반 대학생의 3.42점[27]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로써 간호학과 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보통 이상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지원동기, 학과만족도, 성격 유형, 대인관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흥미와 적성 그리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한 경우, 학과에 만족하는 경우, 외향적 성격인 경우,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 Jeong과 Yoo[2]의 연구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임상실습만족도와 진학 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대상자 그리고 적성과 흥미, 취업률을 고려하여 진학한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일반 대학생의 외향적 자기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이 확인되었고[31], 대인관계 및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관련성 또한 확인되어[32] 본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남녀 대학생의 진로 및 직업의식에 관한 Kim과 Jung[33]의 연구 결과 남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여학생이며, 간호가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양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34], 위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양적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35], 항공승무원 취업준비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양적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36]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임상 실무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이 비판적 사고 성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결과[37]에 비추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고[38], 문제해결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1]가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추후 비판적 사고 성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 대상자들의 진로결정에 있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변수는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 성향, 학과만족도, 외향적 성격유형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이 가장 높은 영향 요인이었다. 셀프리더십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예측하고[39], 대학생이 인식한 문제해결력과 진로동기를 매개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제해결력은 진로동기를 매개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1]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영향 요인

이며[40], 외향적 성격과 자립심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영향 요인임을 확인한 연구[41-42] 역시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 연구[9]에서 간호대학생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있어 진로 의사결정 시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문제해결 능력이 취약하다고 한 바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의 증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재의 임상현장 위주의 비판적 사고 훈련에 더하여 보편적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진로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과정이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과업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일상생활에서 하고자 하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내재적 탐구 과정이다[16]. 즉, 간호학과 학생이 진로를 탐색, 결정, 평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필요성을 인지하여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실제로 셀프리더십은 교육을 통해 증진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43], 다양한 진로 분야, 진로 결정과 관련한 체계적인 셀프리더십 증진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인과관계연구이다.

연구 결과 간호학과 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냈고, 이들 변수 간에는 각각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지원동기, 학과만족도, 성격유형, 대인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적성과 흥미에 따라 혹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 학과에 만족하는 경우, 외향적 성격인 경우,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 성향, 학과만족도, 외향적 성격 유형으로 나타났고, 그 중 셀프리더십이 가장 높은 영향

요인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학과 학생의 진로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학교 및 임상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학과만족도 향상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를 통해 간호학과 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비판적 사고 성향과 진로결정 관련 변수와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간호학과 학생의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B. K. Kim, C. Y. Jyung,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l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areer motiv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4(2), pp. 49-71, 2012.
- [2] J. S. Jung, M. J. Jeong, I. Y. Yoo,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pp. 27-36, 2014.
- [3] A. R. Nam, J. Ha, "The study on the adaptation to college life by patterns of career choice and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0(3), pp. 27-39, 2012.
- [4] Y. J. Ko, I.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pp. 62-71, 2011.
- [5] B. H. Kim, B. Y. Chung, J. K. Kim, A. Y. Lee, S. Y. Hwang, J. A. Cho, J. A. Kim, "Current situation and the forecast of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nursing workfor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5(6), pp. 701-711, 2013.
- [6] S. F. Taylor, N. E. Betz, "Application of self 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pp. 63-81, 1983.
- [7] N. E. Betz, K. K. Voyten,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pp. 179-189, 1997.
- [8] E. Bullock-Yowell, I. Andrews, M. E. Buzzetta, "Explain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ersonality, cognitions, and cultural mistrus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5), pp. 400-411, 2011.
- [9] K. A. Lee, J. H. Kim,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2(1), pp. 42-49, 2015.
- [10] S. Y. Kim, S. A. Bae, "Colleg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12), pp. 429-448, 2014.
- [11] Y. S. Jang, B. K. Song, "The relations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7), pp. 363-392, 2015.
- [12] J. Block, J. H.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1980.
- [13] K. R. Shin, J. Y. Ha, K. H. Kim, "A longitudinal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 critical thinking skill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2), pp. 382-389, 2005.
- [14] M. H. Sung, O. B. Eum,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5(1), pp. 26-36, 2009.
- [15] K. A. Shin, B. H. Cho,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1), pp. 46-56, 2012.
- [16] C. C. Manz, H. P. Sims, "Super 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19, pp. 18-35, 1991.
DOI: [http://dx.doi.org/10.1016/0090-2616\(91\)90051-A](http://dx.doi.org/10.1016/0090-2616(91)90051-A)
- [17] J. W. Lee, E. S. Choi,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social support, career motiv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8(1), pp. 33-54, 2015.
- [18] J. C. Lee, A. J. Hong, "Difference and impact of university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mployability",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15(3), pp. 215-245, 2013.
- [19] J. Block,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pp. 349-361,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0.2.349>
- [20] S. J. Yoo, H. W. Sh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pp. 189-206, 2002.

- [21] I. S. Kwon, G. E. Lee, G. D. Kim, Y. H. kim, K. M. Park, H. S. Park, S. K. Sohn, W. S. Lee, K. S. Jang, B. Y. Chung, "Development of 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6), pp. 950-958, 2006.
- [22] J. D. Houghton, C. P. Neck,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 pp. 672-691, 2002.
DOI: <http://dx.doi.org/10.1108/02683940210450484>
- [23] Y. K. Shin, M. S., Kim, Y. S. Han,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3), pp. 313-340, 2009.
- [24] N. E. Betz, K. L. Klein, K. M. Taylor,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pp. 47-57, 1996.
DOI: <http://dx.doi.org/10.1177/106907279600400103>
- [25] E. K.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1.
- [26] Y. S. Park, Y. H. Kwon,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3), pp. 341-350,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341>
- [27] J. Y. Lim, G. J. Yoon,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school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8(3), pp. 113-130, 2013.
- [28] J. G. Park, "Thinking styles as a predictor of college dance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6(6), pp. 407-419, 2007.
- [29] I. S. Kim, Y. K. Jang, S. H. Park, S. H. S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pp. 337-345,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3.337>
- [30] H. S. Park, J. Y. Ha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3), pp. 695-706, 2015.
- [31] T. S. Kim, K. H. Le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3(4), pp. 123-141, 2012.
- [32] H.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well-being: mediating effects of empower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4), pp. 181-201, 2014.
- [33] S. N. Kim, H. W. Jung,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orientation and professionalism",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8(2), pp. 267-284, 2005.
- [34] K. H. Yun, "The relationship among ego-resiliency, positive emotion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undergraduate : mediating effects of coping method", Da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35] D. J. Sung, "The relationship of at-risk youth' career attitude maturity,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36] E. J. Jung,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aspiring flight attendants in college", Kyongg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37] H. J. Yang,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2), pp. 6387-6394,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2.6387>
- [38] J. H. Jeong, J.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CBNU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4(1), pp. 43-68, 2013.
- [39] N. R. Han, "Research on variable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cused on the office administration majors",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40] K. M.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determining factors for selecting tourism major on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n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41] I. Gianakos, "Predictor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2), pp. 101-114, 2001.
DOI: <http://dx.doi.org/10.1177/106907270100900201>
- [42] N. Wang, L. M. Jone, R. F. Haase, M. A. Bruch, "The role of personal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career choice commit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3), pp. 312-332, 2006.
DOI: <http://dx.doi.org/10.1177/1069072706286474>
- [43] C. S. Jung, "The effectiveness of self-leadership enhancing program in nursing student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김 건 희(Kon-Hee Kim) [정회원]



- 200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중환자, 노인

황 은 희(Eun-Hee Hwang)

[정회원]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간호학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수면, 노인, 탄력성